

건강 칼럼

1:1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에 발전방향은?

인간사에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급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뭐든지 먹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니 말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고 살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 싸움, 영역다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먹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목숨을 건 치열한 먹이사슬, 먹이 피라미드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사의 마지막엔 슬프게도 대부분 질병, 질환에 시달리다가 먹지 못하여 굶다가 생을 마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생명과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경작지의 증가, 곡물의 소출이 증대되어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듯하다.

최근 들어 전후세대의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건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강기능식품(건기식)의 요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완만하지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더하여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유전자분석 2.모발검사를 통한 비타민, 미네랄을 분석하여 각 영양소 섭취의 과다, 과소, 불균형 해소 3.분변검사(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에 의한 유익균, 유해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사, 분석하여 각 개인에 가장 적합한 식품, 영양소의 종류, 적정량 등을 제시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100살, 200살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연관 전, 후방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연구,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확장성이 잠재되어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개인의 선호도, 환경, 추구하는 가치관, 성별, 연령, 체격, 건강상태에 따라 각 개인은 본인에 알맞은 일하는 제품을, 제공자는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런 맞춤형 제품은 (현실을 담아내는데 시차 상으로 좀 늦고

제한점이 적지 않은)실질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첨단기술과 최신정보를 오롯이 제품에 담아 제공하는데 진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런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육성과 시장성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만큼 수요를 따라가는데 약간의 지장이나 잔존하는 현안은 차차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 오랫동안 각종 운동선수, 병후회복기 환자, 만성질환자, 영양불균형, 과체중비만인 등 생애 주기별,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바탕으로 관련 이화학적 검사, 심층적인 영양상담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그에 알맞은 1:1 건강기능성 영양식품을 연구, 개발, 제공하고 있었던 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필요성, 요구성이 예전보다 훨씬 증대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관련법의 필요성과 시장의 발전 속도보다는 좀 늦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독자제언

화려함 속에 가려진 악마의 꽃 '양귀비'

최근 양귀비와 형태가 비슷한 관상용 양귀비인 일명 개양귀비를 원예용으로 재배하게 되면서 양귀비와 구별하지 못해 불법으로 혼합 재배하여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증가하고 있다.

양귀비는 영국화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4월에서 6월 사이 개화하는 식물로 씨, 잎은 어긋나고 긴 난형으로서 밑 부분이 원줄기를 반 정도 싸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결각상의 톱니가 있으며 전체는 회청색이다. 색은 붉은색이 일반적이지만 하얀색과 분홍색의 형태도 띠며 번식력이 왕성하고 성장력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원예용으로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이 둘의 차이점은 꽃잎, 줄기, 열매 총 세 가지만 속지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양귀비는 꽃잎이 많아 겹쳐 있는 형태로 검은 반점 무늬가 자리 잡고 있으나, 관상용 양귀비는 꽃잎이 3장에서 4장 정도가 퍼 있는 형태로 검은 반점 무늬가 거의 없다.

두 번째,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털이 없지만, 관상용 양귀비의 줄기 전체에는 솜털과 같은 털들이 무수히 자라나 있다.

세 번째, 양귀비의 열매는 구슬과 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좌우로 가득 채워진 모양이나,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도토리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름모 형태를 띠는 것이 차이점이다.

과거에는 양귀비의 열매가 채 익지 않았을 때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모아 응급약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된 유액으로 아편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마약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단 한 포기만 재배해도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있다.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을 숙지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사회,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필요하다.

김영길 고창경찰서 수사과형사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예쁘게 손질해 주세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국립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제148회 웨스트민스터 캔셀 클럽 도그쇼 참가견 한 마리가 심사를 위한 손질을 받고 있다. 도그쇼에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각 견종의 특성을 잘 갖춘 개를 선별한다. 이 도그쇼는 AKC 유카누바 도그쇼(미국), 크라프트 도그쇼(영국)와 함께 세계 3대 도그쇼로 꼽힌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외교문제가 된 라인 사태

최근 라인 사태가 불거지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메신저 업체 '라인'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워온 기업이다. 카카오톡, 즉 일본판 카카오톡인 쉐이다.

이 업체에 네이버가 가진 지분은 절반인 50%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에게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요구의 근거는, 지난해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였다. 급기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자, 한일 정부도 나섰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되면서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일본 총무성은 올 들어 두 차례,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도 나서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강제력은 없지만, 라인야후는 모기업인 네이버에 자본 관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측은 경영권 관점에서 행정지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네이버의 지분이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이냐며 우리 정부도 입장을 냈다. 이제 초점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일본에 굴복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난감해졌다.

지분을 매각 하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남아로까지 뻗어 있는 라인의 향후 사업성을 생각하면 지분 매각은 네이버에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내라고 한 시일은 7월 1일이다. 그 전까지 진행될 지분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정치권과 정부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연금개혁 방안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하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054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무산되고 지체되기 때문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 하자는' 사람도 많다.

사전적 국고 투입으로 미래 세대의 과도한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금 고갈을 막고 국민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연금개혁 방안은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조정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얼마를 더 내거나 덜 받거나 하는 데에만 초점을 뒀서는 안 된다. 기금 수익률을 개선하면서 정

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만 한다. 공적연금의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만으로 마련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는 OECD 국가 평균 18.1%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연금개혁 방안으로 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3115가 있다.

(3115)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3% 인상하고 (9%→12%), GDP의 1% 규모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p 개선(연 4.5%→6%)하는 것이다.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핵심은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국고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about providing hope and support for citizen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